Monthly Report
마이다스플러스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자산운용보고서
2008년 4월

Fund Facts

투자목적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1.26
펀드규모: 44억원(순자산 기준)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59%
환매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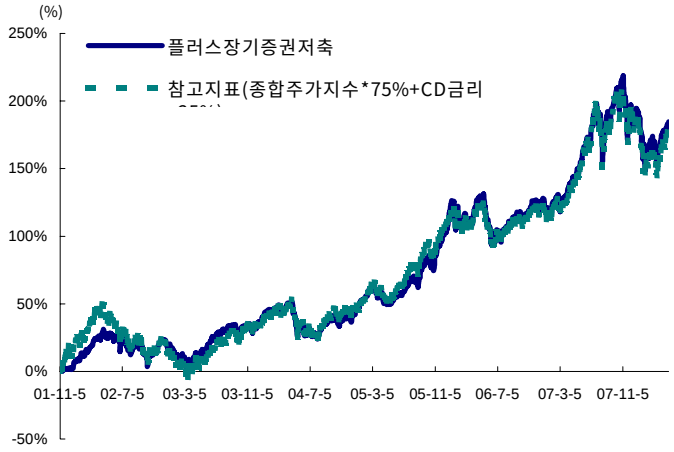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플러스장기증권	5.47%	11.69%	-9.48%	18.12%	184.56%
참고지표	5.45%	9.58%	-7.96%	15.12%	177.19%
초과수익률	0.02%	2.12%	-1.52%	2.99%	7.37%

※참고지표: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1.05~2008.04.30)



펀드매니저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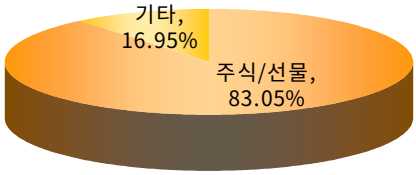
지난 4월 한 달간 펀드는 5.47%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참고지표는5.45% 기록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본격적인 1분기 실적장세를 맞아 상승률이 컸던 전기전자, 화학, 은행 업종 등에 비중확대 하였던 점이 참고지표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4월 한 달간 시황은, 미국의 부동산 위기, 유가 및 환율의 영향 등 매크로 지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개별기업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집중하는 실적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괄목할 만한 실적개선과 긍정적인 향후 전망으로 지수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1,800포인트 이상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종이목재, 화학, 제약, 전기전자, 전기가스, 은행, 서비스업종 등이 상승폭이 컸던반면, 음식료, 섬유의복, 철강, 기계, 운수장비, 유통, 건설, 운수창고, 통신, 보험, 증권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분기 중 가장 큰 악재였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기업실적의 호전 등 긍정적인 신호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등 주도업종 및 주도주의 순환매에 적극 대응하여 수익률 제고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LG화학, 국민은행, LG전자, 오리온, SK에너지,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CJ, 우리금융,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 화,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KCC, STX조선, 동부화재,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NHN, 대한항공, GS건설 등의 수익률은 부진하였습니다. 기간 중 KT&G, 기업은행, 웅진씽크빅를 매수하였고, 미래에셋증권, LG데이콤, 삼성테크윈, 코웰이홀딩스를 매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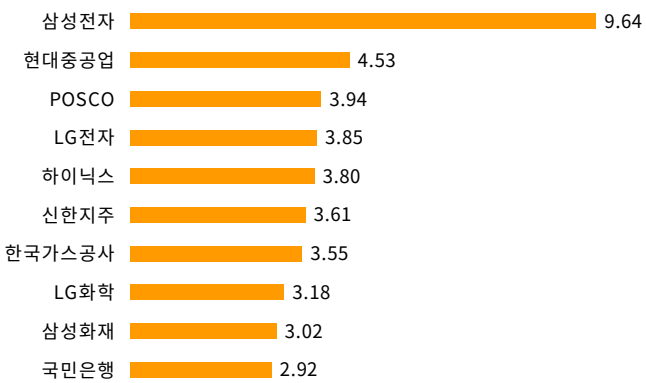
[커버드콜 전략]
행사가격 220.0에 매도되었던 4월물 콜옵션은 옵션만기일 주가가 매도 콜옵션의 행사가격 이상으로 형성되면서 소폭의 옵션프리미엄손실을 실현하였으며, 5월물 콜옵션은 240.0에 매도하였습니다. 당 펀드는 주가하락위험을 일정부분 헤지하고 추가 수익을 얻고자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시 펀드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히 움직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42.05%)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